

동네잔치와 국민적 축제

지난 9월24일부터 1주일간은 제39회 독서주간이었다. 매년 어김없이 같은 날짜에 치러지는 이 독서주간은, 아마도 계절을 감안해 그런 것 같다. 그런데 한 신문은 추석연휴와 겹쳐 유명무실해진 독서주간을 두고, “유통성 없는 행사진행”이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유통성 없음은 행사 일정에만 있지 않은 듯 싶다.

책을 읽기에 가장 적당한 계절인 가을에 출판계는 늘 불황의 먹구름에 휩싸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가을의 문턱을 장식하는 독서주간의 행사가 주관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식상한 메뉴로만 짜여져 있어 일반 독자와는 무관하게 치러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행사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에게 그때 그때마다 특별한 무

엇을 바라는 게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다.

그러나 독서주간뿐 아니라 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저 치르는 일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이 짙다. 책의 해를 보는 입장도와 다르지 않다. 이제 두달 남짓 남은 책의 해 마무리를 생각하기 전에 이제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성공적인 점도 많지만 마땅찮은 구석도 적지 않다.

대규모 서울도서전을 시작으로 지방도서전의 부활, 그리고 각종 전시 등등이 '93 책의 해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적은 인원과 넉넉치 않은 자금으로 그만한 행사들을 진행해온 조직의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노고가 책의 해를 얼마나 예년과 다른 해

로, 이름에 값하는 축제로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워낙 정치·사회적으로 변화가 들끓었던 한해라서, 책의 해가 그리 돋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사실 그런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탓 저 탓 다 따지다 보면 남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해가 의미 깊은 축제였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책의 해라고 해서 독자층이 일시적으로나마 늘었던 것도 아니고, 홍보면에서도 그리 성과가 있었다고 봐지지 않는다. 그저 출판계 안팎의 사람들만이 동네잔치 하듯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다. 불과 1년동안 출판계가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란 의구심으로 시작된 책의 해가 그 의구심의 확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빈다. 적어도 올 책의 해를 기화로 출판계 스스로라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

— 최태원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137호 / 1993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裴銀姬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依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어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林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璵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禧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奭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 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지난 80년 他界한 장 폴 사르트르는 「구토」「자유와 길」 등의 명저로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일대를 풍미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 독특한 자서전 「말」(김봉구의 옮김, 민예사)은 바로 그런 그의 지적 편력과 삶을 적절히 담아낸 그릇으로 읽힌다. 수상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 책은 64년 노벨 문학상 대상이 된 저서이기도 한데, 어린 시절 그의 「숙명적」인 책과의 만남을 묘사한 부분을 여기에 옮겨 실는다.

나는 책에 둘러싸여서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죽을 때도 필경 그렇게 죽고 말리라. 할아버지의 서재는 책에 묻혀 있었다. 그는 일년에 한번, 즉 10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라면 먼지도 못 털게 했다. 나는 아직도 글을 읽을 줄 몰랐는데도 이 石들을 존경했다. 곳곳이 서 있는 책, 비스듬히 누운 책, 벽돌장 모양 서가에 촘촘이 꽂힌 책, 선돌들의 행렬처럼 드문드문 고상하게 놓인 책... 나는 이 책들이 우리집 가운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것은 모두 비슷한 모양이었다. 나는 통통한 고대의 유물에 둘러싸여서 이 작은 성당 속을 뛰어다녔다.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또 나의 죽음을 지켜볼 유물들, 그 영원한 존재가 과거에 못지않는 평온한 미래를 내게 약속해주

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만져보았다. 먼지가 손에 묻는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 유물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으면서도 매일같이 뜻 모를 儀式에 참석했다.

어느 때는 할머니가 장갑단추를 끼워주어야 할 정도로 손이 서툰 할아버지가 이 문화재만은 司祭처럼 숨쉴 있게 다루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얼빠진 사람처럼 일어나서 책상을 한바퀴 돌고는 두 세번 성큼성큼 발을 옮겨 놓으며 방을 가로질러 가서 고를 거를도 없이 책 한권을 얼른 잡아드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그는 의자로 돌아오면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다시 걸터 앉자마자 구두소리를 죽이며 이 상자(역주: 책을 비유해서 쓴 말)를 보려고 가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면 內臟을 송두리째 볼 수 있었다. 푸른기가 돌고 괴괴한 종잇장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고 그 위에는 온통 검은 줄이 가늘게 가 있었다. 그것은 잉크를 먹어 버섯과 같은 냄새를 풍겼다.

할머니의 방에는 책이 넘쳐 있었다. 貸與도서관에서 빌려 온 것인데 한번에 두권 이상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책들을 볼 때마다 나는 새해에 먹는 과자 생각이 났다. 왜

냐하면 보드랍고 반짝반짝하는 그 책장들이 마치 파라핀紙를 잘라서 만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산뜻하고 희고 새것과 닮은 그 책들은 조그만 수수께끼가 되었다. 금요일마다 할머니는 나들이 옷을 입으면서 “이것을 돌려주러 간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돌아오면 검은 모자와 베일을 벗어던지고는 마프(역주: 모피로 만들어 두손을 끼는 대통모양의 것)에서 그것을 꺼냈는데 나는 아리아리해서 “같은 책일까”하고 자문해 보곤 했다. 할머니는 걸장을 정성스럽게 싸고는 그 중 한권을 골라잡아 창가에 가서 베개 달린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구석안경을 쓰고, 피곤과 행복감이 뒤섞인 긴 숨을 내쉬고 흐뭇하다는 듯 가는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내리뜨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미소를 후일 조곤다의 입술에서 다시 보았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내게도 떠들지 말라고 일렀다. 나는 그동안 미사와 죽음과 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룩한 침묵에 빠져 본다. 루이즈는 가끔 작은 소리로 웃는다. 그리고 딸을 불러 손가락으로 어느 한줄을 가리켜 보인다. 그러면 두 여인은 서로 잘 알았다는 듯한 눈짓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나는 너무도 으리으리한 이런 假綴本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집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침입자이며, 할아버지는 그런 책들이 전적으로 여자들만이 숭배하는 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일요일이 오면 그는 심심풀이 삼아 아내의 방에 들어오지만 할 말이 없으니 앞에 우뚝 서 있거나 한다. 우리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린다. 이윽고 그는 유리창을 손끝으로 톡톡 쳐보고는 생각하다 못해 루이즈 쪽으로 다시 돌아서서 그녀의 손에서 소설을 가로챈다. 그러면 루이즈는 발각성을 내며 “여보, 그러다간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잖아요”하고 소리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벌써 눈썹을 치켜올리며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별안간 집게손가락으로 책을 탁 치고 “어디 알 수가 있나”하고 외친다. 이 말에 할머니가 “아실 게 뭐예요, 도중부터 읽으시니”하고 대꾸한다. 마침내 그는 책을 책상 위에 내던지고는 어깨를 들썩해 보이며 나가버린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분명히 할아버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책장의 한칸에 꽂힌 두꺼운 책들—그것은 표지가 딱딱하고 갈색의 코르스로 쌓여 있었다—을 가리켜 보이면서, “꼬마야 저 책들을 너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 나는 신성한 물건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職人の 손자이니까 말이다.